

노인을 고려한 침실용 불박이장 디자인에 대한 기초연구

이 지 숙(군산대 교수)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증가율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는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환경 속에서 고령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고령사회의 주거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지배적 주거 유형이 되어가고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불박이장은 점점 많아지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노인을 배려한 디자인은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조요구 및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수납공간의 개조에 대한 것이 높았고(건교부·주거학회, 2005), 사이즈 코리아(2004년)에 의하면, 노인들은 옷걸이가 너무 높고, 옷 거는 위치와 방법이 잘못되어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에 노인에게 바람직한 침실용 불박이장의 선반 및 옷걸이봉 디자인에 관하여, 국내외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디자인 지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연구 중에서 불박이장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지만, 그 중 노인을 배려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노인을 배려한 불박이장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체계적 연구가 이뤄진 국내외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질적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원칙 및 기준P1509:2006, 건교부·주거학회(2005, 2007)연구보고서, 사이즈 코리아의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Raschko의 연구, ufas2-retrofit manual, ADA(7-1-94)이 조사대상문헌이다. 조사결과, 국내외 지침 모두 높이조절이 가능한 선반을 권장하였다. 특히 국내지침은 잡아당기는 선반을 권하였으나, 높은 선반이나 무거운 물건이 수납했을 경우를 고려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지침이다. 국내지침은 선반높이를 1800mm높이까지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외지침보다 높고, 노인들이 감각이 둔해지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국내외 지침들은 사용자의 사용상 편리를 위하여 끌어당기거나 이동가능하거나 높이조절이 가능한 옷걸이봉을 권하였다. 국외지침들은 옷걸이 봉의 최대높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지침에는 없었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지침은 휠체어 이용자들의 발 받침대를 고려하여, 수납가구에 다리설치를 권하였으나, 국내지침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국내 60대 남녀노인 인체치수를 고려할 때, 60대 노인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옷걸이봉의 쾌적범위는 키 작은 여성노인의 어깨높이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다수의 만족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즉 키 작은 여성노인의 어깨높이 1147mm를 옷걸이봉의 최고높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납선반의 높이나 규격 등을 정할 때 사용자의 인체치수 및 장애물의 유무와 최대도달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는 어깨와 허리사이의 높이를 제외한 다른 높이는 도달하기 어렵다. 이를 토대로, 수납선반의 높이는 최대다수의 쾌적범위를 얻기 위하여 키 작은 여성의 어깨높이와 키 큰 남성의 무릎높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60대 남녀노인을 위한 선반높이로 460mm-1147mm범위가 가장 쾌적한 범위라고 제시할 수 있다.